

## 83

## 절단 작업자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뇌염

성별	남	나이	38세	직종	절단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 1 개요

근로자 박○○은 2002년 5월 (주)○○기업에 입사하여 생산부 반자동반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2002년 8월 이후 수차례 상기도 감염으로 치료받았으며, 2003년 1월 3일 출근하다가 경련이 발생하여 부산백병원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진단 받았다.

## 2 작업환경

박○○이 근무하던 작업장은 10,000평 정도의 작업장에 칸막이가 없이 각 반으로 구분되어있으며, 반자동라인에서는 산소절단기로 철판제품을 가공하는데, 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두께가 2cm 정도 되는 철판(240cm×45cm)을 산소절단기로 가공한다. 2002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물질은 없었다. 2002년 5월부터 거의 매일 3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공휴일 특근이 많았으며, 철야작업도 있었다. 초과근로시간은 2002년 5월 64.5시간, 6월에 57.5시간, 7월에 99.5시간, 8월에 85.5시간, 9월에 161.5시간, 10월에 122시간, 11월에 55.5시간, 12월에 99.5시간이었다.

## 3 의학적 소견 및 고찰

뇌염은 뇌실질의 염증으로 인해 국소적 또는 전신적인 신경정신과적 증후를 나타



내는 질환이다. 바이러스의 침입경로는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코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저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논란 중인데,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과로에 의한 면역저하로 특정한 질환이 발생되는지는 알 수 없다. 바이러스성 뇌염은 감염성 질환이므로, 병원균에 항시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이 아니었던 반자동절단 작업이 원인이 되기는 어려우며, 작업 중 노출된 중금속이 뇌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많지 않다.

#### 4 결 론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박○○은

- ① 수동절단작업을 8개월 동안 하며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진단 받았는데,
- ② 바이러스성 뇌염은 감염성질환이므로, 항시적으로 감염성 병원균이 상존하는 작업이 아닌 수동절단작업이 뇌염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③ 수동절단 작업 중 노출된 금속 흠은 뇌염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많지 않으며, 중금속의 노출수준이 낮으므로, 바이러스성 뇌염의 원인이나 악화요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 ③ 시간외 근무 철야 근무의 부적절한 배치 등은 뇌염 발병 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뇌염의 경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